



남은 신자들에게 주시는 천상의 메시지



이 메시지들은 사랑으로 일치하도록 하기 위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일환으로 천상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에큐메니컬 성지 공식 간행물 (Holy Love, an Ecumenical Ministry)

2022년 1월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에큐메니컬 평신도 사도직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821 조에는 에큐메니즘 운동에 관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공동 기도.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 우리의 모후와 수많은 성인과 천사들이 마라나타 샘과 성지에 발현하고 계십니다. 미국인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 (Maureen Sweeney-Kyle)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곧,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적 거룩함으로 가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모든 신앙의 모든 사람을 환영합니다. 기도는 보편적 언어입니다.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천상이 이 성지에서 주시는 평화를 함께 누리도록 모든 순례자를 초대합니다.

하느님의 자비 축일 - 2022년 4월 24일

“자녀들아, 나는 부활절 다음주인 자비의 축일에 기쁜 마음으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 아들은 너희에게 공적 메시지를 주고, 나는 너희에게 세 가지 축복을 내릴 것이다. 많은 기도와 희생으로 이 날을 준비하여라. 너희 마음속 청원들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 다음번 특별한 기도의 날과 같은 시간이 오기 전까지 매일 너희 마음속에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라. 나는 너희의 노력을 축복해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22년 1월 9일)

토요 기도 모임 - 하느님의 자비 축일 전야 (온라인 생중계)

2022년 4월 23일 오후 3시 - 자비심의 기도 (하나되신 성심의 기도회관)
저녁 7시 - 기도 모임 (하나되신 성심의 기도회관)

일요 기도 모임 - 하느님의 자비 축일 (온라인 생중계)

2022년 4월 24일 오후 2:30 - 행렬과 기도 모임, 예수님의 약속된 발현과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 (하나되신 성심의 별판)

* (저녁 7시 기도 모임이나 온라인 생중계 없습니다.)

■ 2022년 1월 1일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주님 할손례 침례 / 성탄 팔부 침례일 (성탄 팔일 축제 제 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 너희 하느님이

다. 나의 통치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온 우주를 아우른다. 그러나 인간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 내 안에는 모든 진리가 있다. 나와 천국을 누리려면 인류는 반드시 나의 계명들에* 순종해야 한다. 이 진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

“나는 예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고하기 위해 오늘 이곳에서 말하고 있다. 인간이 엔터테인먼트, 패션, 불법적인 기술 활용, 금융 시장 등등 사회 각계 각층에서 나의 계명들의 진리에 계속해서 도전한다면, 나는 반드시 나의 정의와 진노를 땅에 내려야 한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여기면서 살지 마라.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은 벗어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을 선의 도구로 사용하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 받을 때, 너희는 잘못 안에 있지 않을 것이다.”

“세균전을 벌여야 하더라도 질병과의 공존을 나에게 봉헌하라. 언제나 너희 자신의 구원에 좀 더 유익한 길을 따라라. 나의 자비의 빛을 신뢰하라. 용서는 좀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므로, 서로 용서하라. 용서의 맛있는 열매는 평화다.”

“이기적인 동기는 뒤로 하여라. 서로의 복지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나의 축복이 너희 위에 머무를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24:1-6)

주님 것이라네,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그분께서 물 위에 그것을 세우시고 강 위에 그것을 굳히신 까닭일세.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랴?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으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결백한 이 옮지 않은 것에 정신을 쏟지 않는 이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주님께 복을 받고 자기 구원의 하느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으리라. 이들이 그분을 찾는 이들의 세대, 그분 얼굴을 찾는 이들의 세대 야곱이라네.

* 하느님 아버지의 십계명 해설: 2021년 6월 24일 - 7월 3일까지의 메시지 참조:

http://holyllovekorean.com/xe/index.php?mid=subject&document_srl=93159

■ 2022년 1월 2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새해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 너희 마음에서 모든 용서못함과 이기적인 야심, 그리고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을 비워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 너희의 영성을 구축하는 일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라. 나의 승인보다 인간의 승인을 더 구하지 마라. 너희의 모든 우선사항이 무엇보다 먼저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 되게 하여라. 너희 삶 속에서 이 목표에 어긋나는 것은 무엇이든 바꾸어라. 모든 것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아라. 이 목표에 너희 마음을 집중하라.”

“이것이 자아를 죽이고 모든 물질주의를 포기하는 길이며, 나를 기쁘게 함으로써 오직 너희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노력하는 길이다. 너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너희의 기도는 더 강력해지고, 너희의 마음은 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겼던 세속적인 우선사항들은 서서히 덜 중요

한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영혼이 진리 안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21-22)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 ‘거룩한 사랑이란’ 전단지: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9238>

■ 2022년 1월 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마음에서 세속에 대한 애착, 걱정, 용서못함, 분노 등 모든 족쇄를 없애라. 그런 다음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바라는 은총으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줄 수 있게 허락하라.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서 우려나오는 진심어린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너희가 이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는 너희의 천사도 마찬가지다. 어려움중에 너희의 천사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그와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라. 너희의 천사는 언제나 너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천국의 나의 어좌 앞에서 너희를 위해 중재한다.”

“너희의 마음이 온갖 세속적인 걱정으로 심란할 때, 너희의 천사가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의 중재는 매우 강력하다. 너희의 천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희생들을 바칠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보아라.”

+ 성경 구절 독서 (탈출 23:20-21)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 2022년 1월 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들을 믿는다면 너희의 일상 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믿는다는 말은 내가 매일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이다. (이 메시지들에 대한) 믿음은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삶에서 실천할 것을 명한다. 너희가 이 메시지들을 삶에서 실천하면, 너희는 너희 이웃에게도 이 메시지들을 전파하기를 원하게 된다.”

“이 메시지들을 살아내는 것은 너희 삶과 너희 주변 세상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이 메시지들은 한 번에 한 사람(마음)씩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죄는 마음속에 악이 받아들여질 때 시작된다. 그런 다음 그 죄는 마음 바깥의 주변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전쟁과 거짓 들은 바로 이렇게 해서 확산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다시 한 번, 거룩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세상의 마음을 바꾸고자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너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은 너희 온 주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2년 1월 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너희의 온 존재가 나를 기쁘게 하는 데만 전념할 정도로, 또 지극히 사소한 죄까지도 혐오스럽게 여길 정도로 나와 깊은 사랑에 빠지기 바란다. 이런 영혼들은 연옥에서 그리 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너희는 나를 좀 더 잘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랑을 찾을 수 있다.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이 메시지들을 읽어라. 나는 오로지 너희의 복지만을 바란다는 진리를 발견하여라. 이 진리가 너희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애정을 기울여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며 너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3-4)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 주신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23 장)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여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길로 나를 끌어 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저의 삶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 **2022년 1월 6일 - 주님 공현 대축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침에 일어날 때 마음속에 특별한 지향 하나를 품어라. 그러면 그날 하루동안 너희의 모든 기도와 희생이 그 지향에 집중될 것이기에 너희가 (기도나 희생을) 바칠 때마다 지향을 떠올리지 않아도 된다. 매일매일, 하루가 시작될 때 그날의 지향을 나의 신성한 뜻에 의탁하여라. 나의 뜻을 받아들여라. 너희의 받아들임 안에 너희의 내맡김(의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기도와 희생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개입을 믿어라. 나의 개입은 나의 뜻과 하나다. 나의 뜻은 너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큰 은총이다.”

“나는 너희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시련과 의심의 시간에 너희를 위로해 주면서 하루하루의 매 순간을 너희와 발 맞추어 함께 걷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원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2-4)

제 의로움을 지켜 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곤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 주신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8:4-10)

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들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 전통적으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는 4세기부터 1월 6일을 주님 공현 대축일로 지정해 기념해 왔습니다.

■ **2022년 1월 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는 하나라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나의 사랑과 자비는 둘 중 어느 하나도 다른 하나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나의 자비가 세세대대로 이어지는 것처럼 나의 사랑도 그러하다. 어떤 세대도 나의 사랑과 자비 없

이는 존재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매 현 순간은 죄인으로 하여금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리고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을 통해 나의 사랑과 자비에 응답하게 하기 위해 창조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나의 사랑 안에서 살고 나의 자비를 얻으라는 나의 부름에 응답하여라. 온 인류가 이렇게 살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른다. 나의 사랑과 자비는 한계를 알지 못하며, 하늘과 땅 사이의 심연을 이어준다. 만약 모든 이가 나의 사랑과 자비에 응답한다면, 하늘과 땅은 화해할 것이다.”

“성경은 모두 나의 사랑과 나의 자비다.”

■ **2022년 1월 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너희를 위한 나의 뜻에 완전히 의탁할 수 있도록 나의 도움을 청하도록 초대한다. 이것이 영적 힘의 길이다. 이런 내맡김(의탁)은 너희가 품위를 가지고, 현 순간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모두 다 나의 이유에서 일어나며, 나의 손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너희는 지상에 있는 동안은 너희 삶의 특정 문제들에 관한 나의 이유를 영영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바로 이때가 너희가 나를 신뢰하기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때다. 너희의 희생 봉헌이 필요한 경우는 늘 존재한다. 그러나 너희는 대부분 현세에서 그 필요들을 보지도, 또 나의 이유를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렇더라도 내가 영혼들의 복지를 위해 모든 희생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신뢰하여라.”

“너희가 천국에 도달할 때, 너희의 도움으로 구원되었던 영혼들이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어떤 영혼들은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깊지 못하다. 그래서 너희 자신의 영성의 깊이가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어떤 희생도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뢰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6)

의로운 희생 제물을 봉헌하며 주님을 신뢰하여라.

■ **2022년 1월 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부활절 다음주인 자비의 축일에* 기쁜 마음으로 내 아들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내 아들은 너희에게 공적 메시지를 주고, 나는 너희에게 세 가지 축복을** 내릴 것이다. 많은 기도와 희생으로 이 날을 준비하여라. 너희 마음속 청원들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 다음번 특별한 기도의 날과 같은 시간이 오기 전까지 매일 너희 마음속에 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여라. 나는 너희의 노력을 축복해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필리 2:14-18)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지니십시오. 그러면 내가 헛되이 달음질하거나 헛되이 애쓴 것이 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설령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가 되어 여러분이 봉헌하는 믿음의 제물 위에 부어진다 하여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 2022년 4월 24일 - 하느님의 자비 주일 오후 3시 기도 모임
** 하느님 아버지의 ‘세 가지 축복’ (빛의 축복,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서의 축복, ‘계시된’ 축복)에 관한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의 ‘하나되신 성심의 메시지’의 공지 사항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22년 1월 1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메신저야, 오늘 네가 기도를 할 때, 너의 평화를 파괴하기 위해 사탄이 난방 부족, 정전, 여러가지 사소한 방해 등 수많은 분심들을 너에게 보냈다. 이 모든 것은 그 악한 자가 얼마나 너희의 기도를 혐오하는지를 증명한다. 너희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 때, 너희가 연결될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힘은 없다.”

“나의 신성한 중재는 어떤 자연의 힘이나 어떤 사탄의 전략보다도 더 크다. 이 사실은 부활 때 증명되었다. 이런 어려움이 발생할 때, 그것은 너희가 이 진리를 신뢰하는지에 대한 시험이다.”

“나는 은총 지위에 있는 영혼 곁에 늘 있다는 점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 그러면 너희가 예기치 않게 도움을 받게 될 때, 너희는 나의 권능의 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어려움이란 곧 신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은총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4:2-4)

제 의로움을 지켜 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곤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아,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다니려 하느냐?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심을 알아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 주신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1-12)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 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은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 **2022년 1월 1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을 때는 너희 수호천사

에게 도움을 구해 현 순간을 지켜라. 무방비로 현 순간을 놓치지 마라. (한 번 지나간) 현 순간은 결코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에게서 현 순간의 은총을 빼앗아 너희를 영적으로 약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활동을 깨닫지 못한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그들은 악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울 수는 없는 법이다. 빛의 자녀들로서 너희는 악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분별이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 영성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할 뿐 초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언제 어디서든, 나의 보호와 안배를 신뢰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1-12)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 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은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 성경 구절 독서 (탈출 23:20-21)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 2022년 1월 12일. (이 날은 메시지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2022년 1월 1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삶 속의 사탄의 활동을 알아보려면 너희는 반드시 나의 계명들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사탄의 모든 소행은 나의 계명들에 반대되는 것이다. 너희 삶 속의 사탄의 제안이나 활동은 보통 너희의 관심을 끄는 것들의 모습 아래 감춰진다. 아무런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탄의 제안의 이면에는 그자의 진짜 목적인 사악한 계획이 있다. 너희가 분별하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삶 속에 존재하는 사탄의 사악한 음모를 보지 못할 것이다.”

“사탄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자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설령 자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확인하지만, 그 악한 자는 각 영혼의 구원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한다. 너희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에 어두워서는 안된다. 사탄은 모든 이에게서 구원을 앗아가기 위해 드러나지 않게 활동한다. 사탄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자는 어떤 영혼도 구원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이 사실을 이해한다면, 너희는 사탄에 대항하는 강력한 무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7)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쓰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 2022년 1월 1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나를 첫째 자리에 두어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 어떤 일이든 나의 은총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너희 마음이 어수선해 지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 나설 때, 너희는 비로소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너희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걱정으로 낭비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은 ‘늘 너희와 함께 하는 나의 은총에 대한 신뢰’의 주제로 다시 돌아간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어떤 상황도 나의 신성한 뜻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어떤 위기이든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너희와 내가 함께 헤쳐나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너희 삶에서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나에게 자리를 내어다오. 신뢰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면, 두려움은 떠난다.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염려하지 마라.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 노력하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로마 8:28)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 2022년 1월 1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침에 일어날 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하루 종일 수시로 이 결의를 다져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선택이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너희는 거룩한 사랑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것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다. 이것이 현 순간 승리의 생활을 하는 방법이다.”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는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준비된 도구인 너희를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살아가는 데 헌신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현 순간에 결정을 내리든, 너희가 내리는 결정을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 온 주변 세상에는 너희를 거룩한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너희의 집중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다. 거룩한 사랑에 대한 너희의 헌신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탄이 너희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가 더 어렵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너희의 노력을 내가 도와줄 것임을 확신하라. 너희는 언제나 너희 곁에서, 그리고 너희 마음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2년 1월 1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계속해서 거룩한 사랑의 영적 길을 따라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또다시 너희에게 왔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관심이 부족해서, 혹은 다른 것들에 주의를 빼앗겨 길을 잃는다. 개인적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 만족에 빠지지 마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된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너라.”

“더욱 거룩해지고자 하는 이런 결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너희가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기도를 더 바치거나 성인들의 삶에 대해 좀 더 많이 배우거나 혹은 자선 사업에 종사하는 등의 좋은 습관을 키워라. 이렇게 하면 사탄은 너희의 일상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더욱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다짐을 수반하며,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새로운 희생을 봉헌할 수 있는 기회, 특히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들은 그에 감사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영적 여정에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2:28-29)

그러니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깨달으면, 의로운 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관한 정보는 한국어 웹사이트의 ‘하나되신 성심의 계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lovekorean.com/xo/uh>).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계시’는 ‘추천 도서 및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holyllovekorean.com/xo/data/76237>).

■ 2022년 1월 1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눈이 땅을 뒤덮어 눈 아래의 지형을 감추고 있다. 잘못된 양심이 내 앞에서의 너희의 영혼 상태에 대한 진리를 감추도록 허락하지 마라. 나는 단 한 번 너희를 바라보는 것으로 너희의 모든 잘못과 의심, 용서못함 하나하나를 다 본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진리의 눈으로 (너희 자신을) 바라보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너희의 잘못과 결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쉽게, 그리고 꾸준히 참된 자기 인식의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1 티모 4:7-8)

저속하고 망령된 신화들을 물리치십시오. 신심이 깊어지도록 자신을 단련하십시오. 몸의 단련도 조금은 유익하지만 신심은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현재와 미래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 2022년 1월 18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매 현 순간은 저마다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어지는 독특한 은총을 수반한다. 특히 고통의 시간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어떤 십자가도 그것을 인내하도록 도와주는 그에 상응하는 은총 없이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은총을 찾고,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너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을 너희 삶 속에 보낸다. 나는 각 십자가에 대한 너희의 받아들임을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한다. 또한 너희의 십자가들을 죄인들을 회개로 이끄는 데 사용한다.”

“어떤 영혼도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 십자가는 구원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십자가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부르고 있다는 표시로 보아라. 너희가 고통을 겪을 때, 나의 손길이 너희 위에 머무른다는 사실을 확신하라.”

+ 성경 구절 독서 (2 코린 1:3-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시어, 우리도 그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리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겪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

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여러분도 견디어 나아갈 때에 그 힘을 드러냅니다.

■ **2022년 1월 1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지금 이 순간이 너희가 거룩함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라. 하찮은 활동에 현재를 낭비하지 마라. 한 번 지나간 현 순간은 다시는 너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거룩한 성모의 손을 통해 매우 놀라운 은총들을 지상에 보낸다. 이 은총들을 찾아보고, 이 은총들에 대해 좀 더 잘 알게 되도록 노력하여라. 그때에 너희는 비로소 예수와 마리아의 성심 안에, 그리고 나의 거룩한 뜻 안에 존재하게 된다.”

“너희가 평화롭지 않을 때에는 나의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완덕을 향해 나아가는 너희의 여정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너희가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면, 어떤 십자가도 무겁지 않게 되며, 거룩함에서 나오는 힘으로 너희의 짐 곧, 어려움에 대처하게 된다. 많은 이들이 더 거룩해지고 싶어하면서도 그렇게 하기를 미룬다. 이것은 운명을 시험하는 것이다. 현 순간 완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매 현 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6:7-10)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롱당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뿌린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의 욕에 뿌리는 사람은 욕에서 멸망을 거두고, 성령에게 뿌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 좋은 일을 합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제때에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

■ **2022년 1월 2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요즘 시대와 이 세대에서 너희는 구원의 길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 방향으로 주의를 빼앗기고 있다.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 결코 사소하다고 할 수 없는 거짓 신은 바로 소비주의다. 현대 과학기술은 대중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온갖 취미 생활에서 이 거짓 신을 홍보한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희가 너희 활동의 초점을 다시 맞추기를 요청한다. 세상일이 너희 영성을 돌보는 일과 경쟁해서는 안된다.”

“너희 온 주변이 온통 세상과 그 쾌락으로 가득 차 있다면 너희는 나의 계명들과 성경, 그리고 너희 삶에서 죄를 피하는 데 집중하기가 힘들다. 너희 마음속에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욕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경고를 마음에 새겨라. 구원을 너희

의 일상 생활의 중심에 두어라. 순간 순간 너희가 어떤 선택을 내리는지를 의식하여라.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너희가 결정을 내릴 때 도와달라고 너희 천사에게 청하여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 성경 구절 독서 (탈출 23:20-21)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키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게 하겠다. 너희는 그 앞에서 조심하고 그의 말을 들어라. 그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니, 그를 거역하지 마라. 그는 내 이름을 지니고 있다.’

■ **2022년 1월 21일 -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 36주년 기념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하나의 계절이 다른 계절로 넘어가고 있다. 변화는 불가피한데도 모든 것이 여전히 그대로다. 나는 수십 년 전, ‘신앙의 보호자인 마리아’라는 칭호 아래 거룩한 성모를 지상에 보냈다. 교회의 실세들은 이 칭호를 승인하기 위해 그들의 뜻을 굽히기는 커녕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 후, 수십 년이 흐른 후 오늘날에까지 이르렀다. 거룩한 성모는 신앙을 보호하는 권리를 얻지 못한 대신 사탄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종교계를 자유롭게 누비면서 의심과 암시를 통해 해를 끼쳤다. 중상 비방은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나는 인내하는 이들을 감싸 안았다.”

“오늘 나는 너희가 마음속으로 거룩한 성모에게 너희의 믿음을 보호해달라고** 청하도록 촉구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어떤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마리아는 너희의 요청에 따라 의심과 혼란을 몰아내고 너희를 신앙 안으로 더 깊이 데려가기 위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5:12-13)

그러나 당신께 피신하는 이들은 모두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환호 하리이다. 당신 이름 사랑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감싸 주시니 그들은 당신 안에서 기뻐하리이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내리시고 큰 방패 같은 호의로 그를 덮어 주십니다.

* 클리블랜드 교구의 주교는 ‘신앙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승인해 달라는 우리 모후의 청에 대해 한 명의 신학자와 검토한 후, 성모님과 성인들에게

대한 신심이 이미 너무 많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우리의 모후께서는 1987년 클리블랜드 주교에게 이 칭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셨습니다.

** 1997년 3월 21일 메시지 참조

■ **2022년 1월 22일 - 국가 인간 생명 존엄의 날.**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역경에 직면하여 인내하기 바란다. 세상은 종교를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심지어 미신적인 것으로 폄하한다. 그러나 나는 노아의 시대도 이와 매우 흡사하였다는 사실을 너희가 깨닫기 바란다. 노아의 시대에는 만질 수 있는 것 즉, 삶의 물질적인 면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좋은 일들을 회상할 때 그들은 나와 그들의 관계를 지상의 보물 중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궁극에는 이것만이 중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기 위해 부를 축적하려 애쓰며 일생을 보낸다. 그러나 사실, 각 영혼은 천국에서 자신을 기다릴 은총의 부를 축적해야만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거룩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도록 명한다. 행복한 영혼이란 자기 자신을 가장 뒷전에 두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일생을 사는 이다. 오늘날의 사회는 이런 태도를 어리석은 짓이라고 치부한다.”

“나를 만유 위에 사랑하라는 계명은* 오늘날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너희는 이 계명을 너희 삶의 목표로 삼아야만 한다.”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4)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 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 첫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야”): 2021년 6월 24일 메시지 참조 / 십계명 해설

http://holylovekorean.com/xe/index.php?mid=subject&document_srl=93159

■ **2022년 1월 23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두 눈송이도 동일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두 사람도 동일하게 만들지 않는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도

차도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또한 사람들은 그들이 내리는 선택들로 인해 심판 때 그들의 영혼들이 구별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바로 이 선택들이 중요한 것이다.”

“너희의 영혼을 진리로 감싸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산다면 너희의 영혼은 심판 때 순수한 아름다움을 발하게 될 것이다. 타협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지옥은 진리보다 자신의 의견이 더 중요했던 영혼들로 가득 차 있다. 지체롭게 나의 계명들을 따라라. 나의 계명들은 진리이기 때문이다.”

“모든 영혼은 나의 계명들에 대한 그들의 순종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나의 계명들을 알고 사랑하고자 했는지에 따라 심판 받는다.”

+ 성경 구절 독서 (1 요한 3:21-22)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우리를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하는 것은 다 그분에게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 **2022년 1월 24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종종 세상에 엄청난 영적 압박이 있어서 너희가 의로움의 길을 따르고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 매 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때가 있다. 나는 이것을 이해한다. 너희가 순간 순간 내리는 선택에서 가장 많이 간과되고 있는 방해 요소는 바로 용서못함이다. 영혼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원한은 영혼의 개인적 거룩함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영혼이 원한을 인식하지 못할 때 더욱 그러하다.”

“너희 마음에 나쁜 기억들을 가져오는 이들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여라. 거룩한 성모에게 도움을 청하여라. 마리아 또한 그녀의 삶에서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 주어야만 했다. 마리아는 너희가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모든 이를 용서하고 나면, 너희의 마음과 나의 성심 사이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은총의 길이 열리게 된다. 나쁜 기억들이 너희가 나와 더욱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라.”

+ 성경 구절 독서 (골로 3:12-15)

그러므로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 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2022년 1월 25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의 기도 생활을 좌절시키려 하는 어떤 방해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것은 모두 사탄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너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나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든, 자유의지가 너희의 기도에 대한 반응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나의 뜻이 방해 받을 때도 나는 너희를 저버리지 않으며, 여전히 너희의 기도 청원을 듣고 있다.”

“너희가 너희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가족(조부모, 친척 등)을* 생각한다면 너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는 너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유의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충실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여라.”

“한 가족으로서 기도 안에서 인내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행동 방침이 명확하게 보일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대가족: 부부와 그들의 미혼자녀 이외에 더 넓은 범위의 친족원을 포함한 가족을 가리키는 가족.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2022년 1월 26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나는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 전념하는 이들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지 않을 때 매우 슬프다.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존중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는다. 또한 인내를 실천하지도 않는다. 어떤 이들은 오직 다른 이들의 부정적인 면만 본다. 이런 불쌍한 영혼들은 언제나 그들의 환경이 그들을 흡족케 하기를 바랄 뿐,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환경을 대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

“나의 비통한 성심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은 그들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더 발전하기 위해 그들의 결점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이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주목하라고 말해주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메시지들은 영혼들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정화로 부른다.”

“영혼들은 사실 어느 면에서 더 발전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 매일 자신의 양심을 성찰해야만 한다. 나는 영혼들이 거룩한 사랑의 진리 안에서 살도록 요청하고 있다.”

+ 성경 구절 독서 (2 테살 2:13-15)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때문에 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첫 열매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라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형제 여러분, 굳건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 **2022년 1월 27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마음속에 특별한 지향이 있을 때는 연옥 영혼들에게* 기도하여라. 저 아래 연옥에는 너희를 기꺼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큰 무리의 영혼들이 있다. 그들의 기도는 강력하다.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은 특히 더 너희를 도와주고 싶어한다. 이 영혼들은 스스로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옥의 감옥에서 점점 더 천국을 향해 올라가도록 도와주는 너희의 기도와 희생에 너무나도 감사해 한다. 너희의 노력으로 연옥에서 해방된 이들은 너희에게 매우 큰 은혜를 입어 너희에게 특별히 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그들은 너희의 영원한 기도 협력자가 된다.”

“연옥 영혼들을 돕기 위한 어떤 기회도 놓치지 마라. 그들 또한 너희를 돕기 위한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이 영혼들 또한 너희의 이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갈라 5:13-14)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 연옥에 관한 메시지 소책자:

<http://holyllovekorean.com/xe/data/79689>

■ **2022년 1월 28일 -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가 나의 뜻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울 때는 거룩한 성모의 삶을 떠올려 보아라. 나의 뜻에 대한 마리아의 '예'라는 응답은 그녀가 불명예에 직면할 것을 뜻하였다. 또한 마리아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다. 마리아는 그저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예'라는 응답을 되풀이할 수 밖에 없었다.”

“삶이 너무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 안에서 살겠다는 거룩한 동정녀의 결의를 본받아라. 마리아의 '예'라는 응답은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모든 백성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었다. 나의 뜻에 대한 너희의 '예'라는 응답이 마리아의 '피앗'에 비해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에게서는 똑같은 순종의 다짐으로 보인다. 순종을 통해 너희가 나를 선택하면, 나 역시 너희를 나의 은총의 도구로 선택한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15-17)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 2022년 1월 29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나는 사탄이 오늘날 세상에서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야심과 탐욕을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천국에서 보고 있다. 이것은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세계 도처에서 볼 수 있다. 야심과 탐욕은 사악한 영들이 인간 관계에서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 각 영혼 안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이다. 이것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혼의 여러가지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모든 이의 마음속에서 진리가 승리하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하면 사탄이 드러나며, 빛에 의해 밝혀진다. 이 빛은 빛이 보여지는 모든 곳에 평화를 가져다준다.”

+ 성경 구절 독서 (1 베드 1:22-23)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살아 계시며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 태어났습니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5:6-10)

여러분은 어느 누구의 허황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 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 2022년 1월 30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자기 포기(self-abandonment)의 이점을 깨닫기 바란다. 자신을 내맡기는 것을 실천하는 영혼은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의 이유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는 삶의 모든 것을 그것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그는 나의 뜻에 열중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나의 뜻을 받아들인다.”

“자기 포기는 매 현 순간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한다. 이런 영혼은 어려움에 직면해 효과적으로 나를 신뢰할 수 있기에 평화를 누린다. 그의 십자가들은 자신을 내맡기는 이런 내맡김을 통해 완화된데, 이는 영혼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형편을 바꾸는 데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포기는 많은 기도가 요구된다. 나의 신성한 뜻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이 자기 포기는 사탄을 그 자리에서 패배시킨다. 이 은총을 얻기 위해 기도하여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것이다.”

+ 성경 구절 독서 (시편 9:10-11)

주님께서는 억눌린 이에게 피신처, 환난 때에 피신처가 되어 주시네. 당신 이름을 아는 이들이 당신을 신뢰하니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아니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의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의 강연 (녹음 영어 버전):

- 자기 포기 (10 분): <https://www.holylove.org/self-abandonment.mp3>

- 내맡김 (15 분): <https://www.holylove.org/self-surrender.mp3>

- 신뢰 (10 분): <https://www.holylove.org/trust.mp3>

■ 2022년 1월 31일. 저는 (모린)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의 하루가 시작되는 매일 아침 너희가 바치기를 바라는 다음의 기도를 너희에게 말해주기 위해 왔다.”

“천상의 아버지, 오늘 저는 당신께 저의 마음을 의탁하나이다. 제가 세상에서 당신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의 신성한 아드님의 성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모든 악에 맞서 저를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저에 대한 사탄의 모든 사악한 계획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당신의 신성한 뜻으로 감싸주소서. 아멘.”

“너희가 진심으로 이 기도를 바치면, 이 기도는 평화를 가져다준다.”

+ 성경 구절 독서 (에페 6:10-18)

끝으로, 주님 안에서 그분의 강한 힘을 받아 굳세어지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전투 상대는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채비를 마치고서 그들에게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장을 갖추십시오. 그리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의로움의 갑옷을 입고 굳건히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위한 준비의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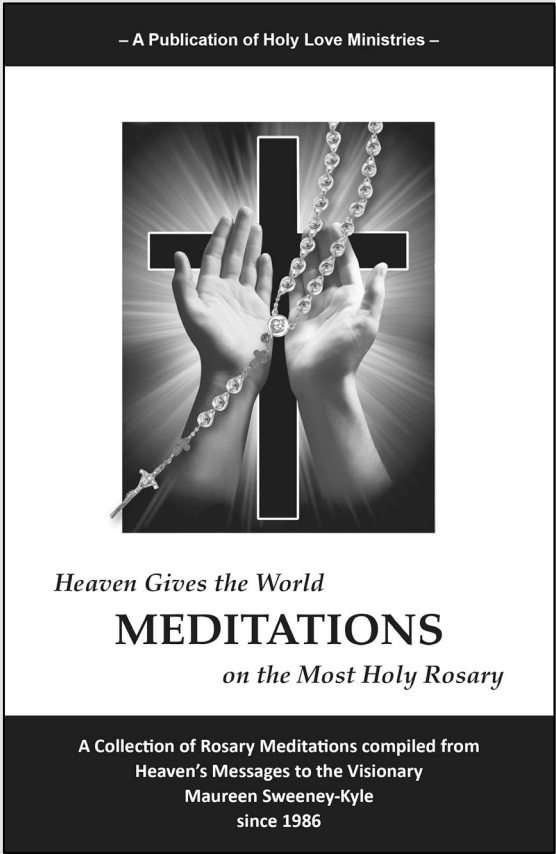
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불화살을 그 방패로 막아서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쥐십시오.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 신간 서적 —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 (1986-2008)
에서 발췌한 영어 묵주기도 묵상 모음집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전화: 440-327-4532
www.RosaryOfTheUnborn.com



The Rosary of the Unborn
Changing Hearts...one Prayer at a time.



www.RosaryOfTheUnborn.com

주문: 440-327-4532 로 전화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합니다.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용어 설명

목격증인, 메신저, 메시지들 (Visionary, Messenger, or the Messages):

천상이 미국인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시는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

선교회, 선교사업, 성지 (Ministry, Mission, Property or Site):

미국 오하이오 (Ohio) 주 노스 릿지빌 (North Ridgeville) 시에 위치한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에큐메니컬 선교회 및 선교사업.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본부.

영적 여정, 거룩함의 여정, 심방들 (Spiritual Journey, Journey of holiness, Chambers):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인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개인적 거룩함을 향한 영적 여정.

하나되신 성심 (United Hearts):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하나되신 성심.

남은 신자들, 남은 자 (Remnant Faithful, Remnant):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에서는 두 가지 용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성경 구절: 모든 성경 구절은 천상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한국어 성경 구절은 2005년 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새롭게 번역한 '성경'에서 발췌합니다.

정기 기도 모임

매일 묵주기도 모임 (월요일 - 일요일) 저녁 7시

모든 기도 모임 참가자는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이나 거룩한 사랑의 축복 또는 신성한 사랑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중 한 가지 축복을 얻으면 나머지 축복의 은총도 다 얻는 것이 됩니다. 이 축복들은 말이나 기도 지향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하나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 (UNITED HEARTS BOOKSTORE)

하나되신 성심의 성물 센터는 월요일-금요일 (11:00-5:00), 토요일 (12:00-5:00), 일요일 (1:00-5:00) 까지 영업합니다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더 자세한 정보는 440-327-4532로 문의하시거나 성물 센터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www.RosaryOfTheUnborn.com

성지 오시는 길

마라나타 샘과 성지 (Maranatha Spring and Shrine)는 로레인 카운티 (Lorain County)의 남동쪽에 위치한 이튼 시 (Eaton Township)에 있으며 주소는 37137 Butternut Ridge Road입니다. 본 성지는 미국 오하이오 (Ohio)주 클리브랜드 (Cleveland) 시에서 서쪽으로 30분 거리에 위치하며, Route 83번과 Lorain Road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1.3마일 지점에 있습니다. Lorain Road는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실 때 Butternut Ridge Road로 이름이 바뀝니다. 본 성지는 Ohio Turnpike (I-80)에서 방향에 관계 없이 Exit 152번으로 나오시거나 Route 480 West (서쪽 방향)에서 Exit 2번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80번이나 480번 고속도로에서 나오시면 North Ridgeville 시의 Lorain Road가 나옵니다. Lorain Road에서 서쪽 방향으로 4마일 정도 가시면 (도로명이 Butternut Ridge Road로 바뀝니다) 왼쪽에 성지가 있습니다.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

월 메시지 묶음 (뉴스레터): 본 뉴스레터는 목격증인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해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출판합니다. **영어든 한국어 번역이든 무료 월 메시지 묶음을 우편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이름과 주소, 우표가 붙여진 하얀 편지 봉투 (사이즈: 4-1/2" x 10-3/8") 12개를 아래 성지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요금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TWO-OUNCE Stamps 라고 하는 우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 봉투 사용시 통보해 드리며, 그때 다시 추가로 봉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환율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퀴나스 웰컴 센터 (Aquinas Welcome

Center)에 오시면 뉴스레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의: 주소를 적으실 때 대문자로 크게 적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메시지 듣기 (영어): 녹음된 메시지를 듣고 싶으신 분은 (440) 327-5822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새 메시지는 가능한 한 매주 수요일 기도 모임 후에 업로드 됩니다.

이메일 수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이메일로 수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지 웹사이트 (영어)에서 가입하시거나 아래 이메일 주소로 수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MAMSHL@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웹사이트: 메시지는 검토와 승인이 끝나는 즉시 웹사이트에 올려집니다.

기도 청원

우편,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기도 청원은 성모님의 축복의 지점에 올려집니다.

전화 신청: 440-327-8039 (영어)
440-657-0113 (한국어)

이메일 신청: PRAYERS@holyllove.org (영어)
HolyLoveKorean@gmail.com (한국어)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연락처

우편 주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아퀴나스 웰컴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7

메시지 듣기: 440-327-5822

선교회 이메일: MAMSHL@holyl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love.org

웹사이트: www.holyllove.org (영어)

한국어 연락처: 440-657-0113 (전화)
HolyLoveKorean@gmail.com (이메일)
www.holyllovekorean.com (웹사이트)